

설립 10여년만에 콘지관설비 세계서 인정받아

전자동화 · 특성화 설비 개발에 역점



▲ (주) 윤성 정수훈 대표이사

한국의 중소기업이 경쟁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제품을 인정받고 꾸준한 수출신장을 하고 있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종업원도 20여명에 불과한 (주)윤성은 불과 10여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만 세계적인 지관설비 메이커와의 사이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오랜 전통을 가진 세계의 기업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우수한 제품개발로 증명되고 있다.

국내 지관제조업체는 약 3백개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매출액도 연간 약 3천억원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지관산업에 대한 인식이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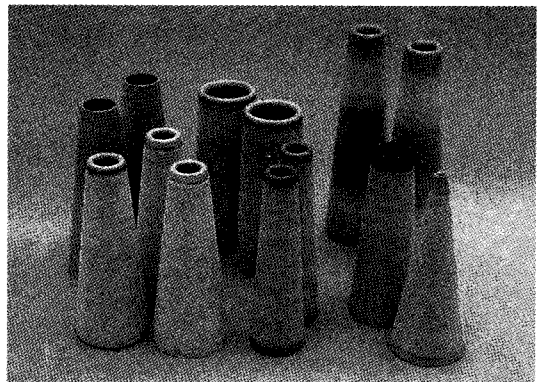
못미치고 있음이 현실이다.

특히 가족중심으로 3~4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가 소규모로 난립하고 있고 특별한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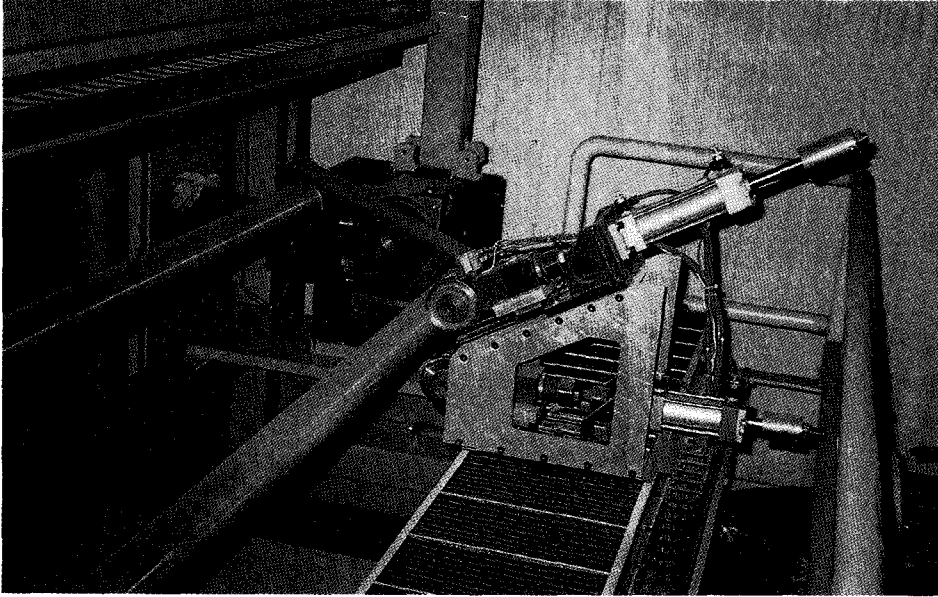
설비의 수준이 곧 제품의 수준과 직결되는 특성상 우수한 설비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인데 기존에 생산되던 설비보다 한단계 향상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평을 듣고있는 윤성은 경영자의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업계에 정착할 수 있었다.

88년 윤성기계로 설립되어 4년만인 92년 수출을 시작, 93년 무역의 날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저력을 과시한 윤성은 97년 윤성기계와 삼풍지관을 합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젊은 사업가를 믿고 지지해준 여러분들의 도



▲ 콘 및 튜브형 지관제품



◀ POY지관 NC 2날 컷팅기

움과 윤이 남달리 좋아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제품을 선보여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 뿐입니다"라고 겸손해하는 정 사장은 세계의 곳곳에서 윤성의 설비가 설치되고 작동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며 우리나라의 제품이 당당히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득 웃음이 나온다고 흐뭇해 했다.

지관이란 전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각도를 가지고 있는 콘 지관과 각도가 없는 튜브형 지관으로 구별된다.

지관은 용도에 따라 보빈, 코아, 튜브, 화이버드럼, 콤포지트캔, 콘지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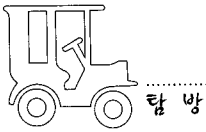
또한 판지를 주 원료로 만드는 만큼 환경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원료가 판지, 접착제 등으로 단순하여 제조가 쉬운 등의 특징을 가지

고 있는 품목이다.

정 사장은 "지관의 국내 제품의 수준과 수입제품을 비교해보면 품질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고정관념으로 수입되어 오던 부분이 많았다"며 해외시장 개척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동남아시아, 남미 등 해외에서는 오히려 국내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국내 유저들에게 편견을 버리고 국내제품에 대한 애정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 사장은 58년 안양에서 태어나 안양공고 화학공과를 졸업하고 방위산업체인 (주)수원지관에 입사, 병역특례자로 근무하면서 지관과 인연을 맺게 됐다.



또한 운영과 제품개발면에서 인정 받아 지난 95년에는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사에서 창의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던 정 사장은 “지관업계는 연간 3천억원의 규모이기는 하나 규모가 영세한 업체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관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제조설비, 특성, 원부자재 등이 달라 규모의 대단위가 어렵기 때문이며 비교적 제조설비가 간단하여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특성 때문으로 보여집니다”라고 밝히며 지관의 국내 사용현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섬유산업 발달과 함께 성장해 온 지관산업은 점차 섬유산업 이외의 용도개발로 포장산업용 지관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관의 원료가 종이인 만큼 환경에 저해받는 부분이 적어 그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정 사장은 예측했다.

정 사장은 현재 섬유산업용 지관의 경우 고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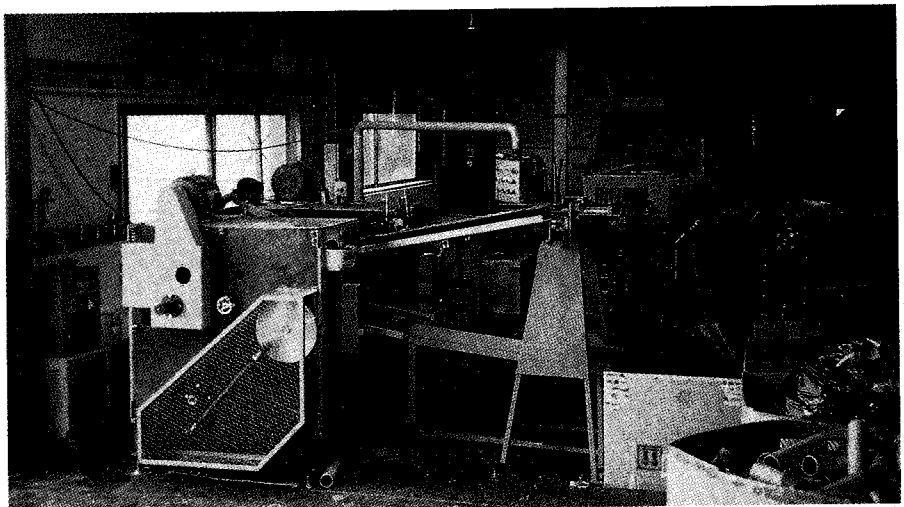
고품질화되고 있는 경향에 맞추어 지관도 고품질, 고가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화섬업체의 지관수요가 늘어 이에 따른 지관공장의 대형화 추세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름산업용 지관의 경우는 개발여지가 많아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인데 포장용으로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건축용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분야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정 사장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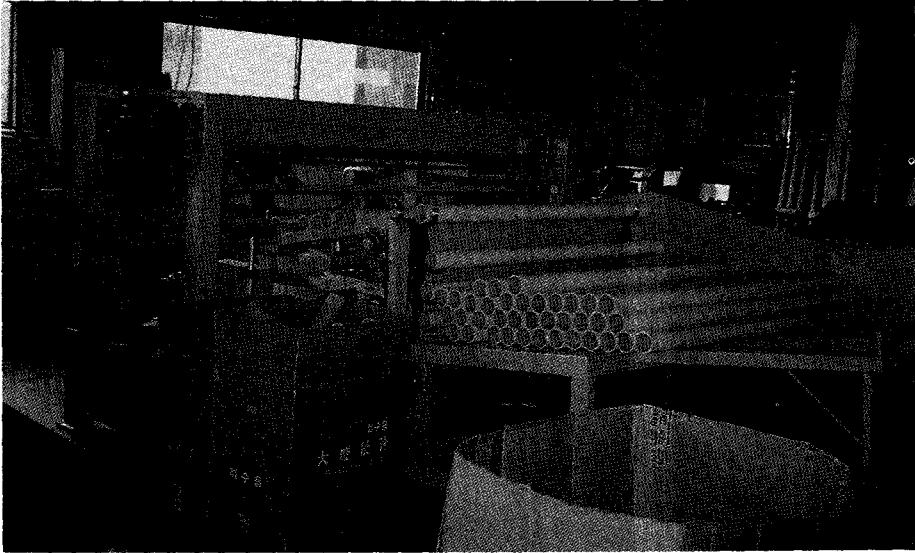
지관 자동설비는 제작하기 까다로운 품목인데 그 이유는 지관 원자재가 균일하지 못한 것에 있다.

자동지관제조기계는 다양한 종류의 원료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특히 자동지관 중에서도 큰 지관제조설비는 기계장치가 복잡하고 비싸며 연속작업도 쉽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했다.

“저희 윤성이 제작하고 있는 설비는 면방직용



▶ 컷팅·기공설비



◀ 윤성이 최근 개발, 공급하고 있는 전자동 DTY설비

전자동 콘지관 제조기와 튜브형 지관제조기 및 관련 기기입니다. 또한 지난 1997년도 중소기업청 주관 기술혁신사업 업체로 지정받아 지관 표면처리용기계를 개발 중에 있으며, 1999년 1월 중기청 선정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아 각종 지관제조용기계를 보다 성력화하고 고품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정 사장은 주요생산품목을 소개했다.

또한 98년 DTY지관용 전자동 컷팅가공기를 개발하여 국내 4개사에 이미 납품한 상태인데 DTY설비는 기존설비보다 로스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스피드는 2~3배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업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성은 콘지관제조설비 세계시장의 80%를 석권하고 있다.

그간 세계 콘지관 기계 시장을 독점해 온 독

일 크리스천 마이어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업체들에게 많은 설비를 공급한 기록을 자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우수 업체와 당당히 맞설 것이다.

또한 "품질이 우수한 기계에서 정밀하게 제조된 지관이 필름 와인딩과 화섬사의 권사율을 높히는 데 기여하므로 유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주력할 것이며 생산성이 높은 전자동화 설비의 개발과 수요자의 특성화된 기계 개발도 곧 실현할 것"이라는 정 사장은 "그간 어려운 시기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가공장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안정되어 제품 개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어 앞으로 발전할 운성에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는 여유를 남기기도 했다. ☐

이선하기자